

월/요/광/장

박 상 호



직업(職業)의 사전적 의미는 ‘생계를 위해 일상적으로 종사하는 일’이다. 직업에 대한 가치추구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면 봉건사회에서는 생활양식의 유지를 위한 ‘사회적 역할의 실현’으로 인식되었고, 종교개혁 이후의 천직(天職)의식이 지배적이었던 사회에서는 ‘개성발휘의 장’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게젤샤프트(Gesellschaft)화가 진행 중인 이사회에서는 ‘생계유지 및 영리 추구’의 직업관이 강하게 형성되었다.

직업의 종류에 따른 계급과 의식의 경향은 산업사회 이후 직업의 종류에 따라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구분하였고, 정보와 사회에서는 ‘골드칼라’(직식 근로자 그룹)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산업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그린칼라’(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력 그룹)가 등장했다. 이런 새로운 개념의 용어 등장은 곧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제 21세기 젊은이들은 시대의 흐름을 바로 직시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직업의 종류가 곧 계급으로인

식되었던 인식들이 바뀌어져야 한다. 단순히 특정 직업을 통해서 기득권세력에 진입하여 안정된 삶을 누리겠다는 발상은 20세기 젊은이들에게나 맞는 진부한 태도이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이

건강한 사회를 위한 직업의식

소중하지않는 것이 없듯이 유기체와도 같은 공동체에서 소중하지않는 직업도 없다. 이제는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던 소중한 그 역할들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 있는 국민 의식이 뿌리를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장래 희망직업에 대한 1만1000명의 고등학교대상 설문조사에서 희망 직업의 수는 272개이었고, 그중 5500명은 19개의 직업을 선택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직업의 수가 2003년 기준 9600개, 최근 자료에 의하면 1만3000개, 미국은 2003년 기준 3만 개, 최근에는 5만 개로 추정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특정한 직업에만 관심이 있는지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이는 지나치게 직업차별의식이 팽배하고, 특정 직업을 통해 기득권세력으로의 진입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3D업종에는 인력난에 허덕이나 대졸 고 급실업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만다. 요즘 고등학생들은 취업이 잘되는 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진학한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은 어느 영역이든지 간에 취업이 잘된다는 것은 그만큼 재직 수명이 짧아서 순환이 빠르다는 사실이다.

또한 앞으로 10년~40년 후에는 현재 직업의 80%가 소멸하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젊은이들은 기존의 소외됐던 직업군에 뛰어들어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혁신에 도전하는 자세를 갖거나 선진국들의 다양한 직업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미래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데 올인 해야 한다.

21세기 젊은이들은 20세기 젊은이들처럼 취업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한다. 창의적인 사고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해 가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30세의 한 젊은이가 이 러닝(e-

Learning) 영어 인터넷 강좌 개설 5년 만에 년 10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사례와 같이 신개념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부지기수로 많다. 음악을 전공했던 미국의 한 젊은이가 인터넷 쇼 팟몰에서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아이튠으로 성공한 그 사업체의 자산 가치가 13조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 사례도 있다.

우리 젊은이들은 발상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닌 젊은이들의 신개념 아이튠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계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을 직시하고 21세기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직업을 창출해가는 글로벌시대의 인재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아울러 직업의 종류보다는 직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교육함으로써 젊은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길을 안내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직종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어느 직종에서든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이들을 영웅처럼 대접하는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조선대 미래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대형마트 동네 상인 생계마저 끊으려는가

대형마트가 피자에 이어 ‘서민형 상품’으로 불리는 치킨까지 판매한다고 한다. 동네상권의 잠식도 부족해 이제 영세상인들의 생계 수단마저 끊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얼마 전 이마트가 피자를 저가판매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더니 이번엔 롯데마트가 치킨을 시중가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다. 롯데마트가 지난 9일 첫 판매를 시작한 5000원짜리 통큰 치킨은 예약물량이 거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는 시중 치킨 전문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가격 때문이다.

이마트는 이미 지난 20일부터 일반 피자보다 1.5배나 큰 피자를 1만1500원에 판매해 동네 치킨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다. 이번 롯데마트의 치킨 판매도 최대 라이벌인 이마트의 피자 취급에 맞선 상술로 보인다. 두 대형마트의 끝없는 경쟁으로 동네 영세상인들이 팔려나갈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출혈까지 감수하면서 저가 판매에 몰입하는 목적은 고객을 일단 매장에 오도록 한 뒤 추가 구매력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피자과 치킨을 일종의 ‘미끼상품’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저가 전략이 마케팅 기법 중 하나이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덕분에 싼 피자나 치킨을 사 먹을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대기업이 동네 영세상인들이 생계를 위해 파는 상품까지 손을 대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난다. 최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분위기와도 맞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점점 심화하고 있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하면 국민화와 국가발전에도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형마트의 무차별적인 동네 상권 진출이 불러올 부작용을 예상롭게 봐서는 안 된다. 당장 이들의 압박한 피자·치킨 장사부터 제재해야 할 것이다.

광주공항문제, 군 공항 이전 논의가 순서다

공군이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 전투비행장을 무안공항으로 이전에 합의할 경우 광주기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군의 이 같은 언급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공항 이전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군은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 2008년 국방부 주관으로 수행한 ‘광주 군 공항 종합발전방향’ 연구용역 결과, 무안공항이 군 공항으로서 기능 발휘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무안지역으로 군 공항 이전에 합의하면 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었다.

우리는 공군이 광주전투비행장의 이전문제를 밝힌 만큼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국토해양부가 광주공항의 국내선 이전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군 비행장이 이전 쪽으로 결론난다면 광주공항 문제도 자

연스레 해결되는 것이다. 군 비행장을 이전하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광주공항 국내선 존치를 고집할 이유나 명분은 있을 수 없다. 국토부 역시 오는 2014년까지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다음달 발표하겠다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 국토부와 같은 입장인 전남도 또한 마찬가지다. 여차피 광주공항과 군 비행장은 한 묶음이 아닌가.

이제 공군의 입장이 나온 만큼 양시·도와 국토부는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를 먼저 논의하는 것이 순리다.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문제에 집착한다면 갈등만 키울 뿐이다.

오히려 광주시는 이전을 염두에 둔 부지 활용 대책을 세우는 게 더 효율적이다. 전남도와 국토부도 이전에 대비해 무안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방안부터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無 等 鼓

이따매 시골길이나 산자락을 지나다 보면 서리를 인 채 갑나무 끝에 붙게 빛나는 홍시 몇 알을 곳곳에서 만나게 된다. 감을 팔 때 겨울철 먹이가 부족한 새들을 위해 남겨놓은 ‘까치 밥’이다. 보기만 해도 가슴 훈훈해지는 ‘공생의 징표’다. 언제부터인가 감을 팔 사람조차 없어 방치된 홍시들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그대로 낀감이 돼 버리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어지는 미풍양속이다.

세시풍속에도 ‘까치 밥 주기’가 있다. 칠월 칠석(七夕)날 밤 눈물의 해후를 하는 견우와 직녀를 위해 오작교(烏鵲橋)를 놓느라 정수리가 벗겨지고 기운이 빠진 까막 까치들을 위해 음식을 내놓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담장 위에 밥을 조금 올려놓거나 대문 바깥에 밥과 나물 몇 가지를 차려놓곤 했다.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도 소쿠리에 오곡밥을 담아 처마 끝이나 장독대 위에 올려놓는 풍습이 있었다. 이를 역시 ‘까치 밥’이라고 불렀는데 까치뿐만 아니라 까마귀 등 다른 동물들도 덕분에 허기를 달

래곤 했다. 들이나 산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주변에 음식을 던지거나 차례를 지낸 후 약간의 음식을 마당이나 집밖에 내놓는 ‘고수레’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우리 고구 풍속에는 다른 생명체를 인간과 똑같은 존재로 대하는 공생의 지혜가 녹아 있다. 모든 은혜를 자연에 돌리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애뜻한 정이 담겼다.

IMF 사태와 세계금융 위기는 기업들이 지나치게 이윤 추구에만 골몰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서민경제는 아직도 얼음장인 대 기업 유통업체들은 치킨과 피자 등 생계형 업종까지 파고들

면서 골목 상권까지 빼앗으려 혈안이다. 아흔아홉 섬지기 부자가 빈농의 한 섬지기 눈을 탐내는 격이다. 남이야 망하든 말든 나만 잘되면 된다는 놀부 심보다. 이제는 까치 밥의 지혜로 상생과 나눔, 동반성장을 꾀할 때다. 그것이 바로 상도의(商道義)를 지키는 길이다. /정추식 정책부장 who@kwangju.co.kr

까치밥



법조칼럼

정 영 하



이혼 여부가 문제될 때 많은 고민들이 발생한다.

판사는 더더욱 고민한다.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다툼이 치열하고, 그것이 자기의 육신을 채우기 위한 것 만은 아닌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말이다.

한 사건을 소개한다. 아빠는 부정행위로 엄마와 크게 다툰 후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고, 엄마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1년 정도 생활하였다.

하지만 엄마는 가지고 있던 돈이 소진되자 자녀들을 아빠에게로 보냈으며, 자녀들은 아빠가 사는 쪽으로 전학하여 아빠, 새엄마와 함께 1년 반 정도를 살

았다.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까? 너희들 누구랑 살고 싶니?

누가 양육자가 되느냐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부부 일방이 주된 양육자가 되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별 탈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니 말이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과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양육비, 면접·교섭 등 부모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너는 누구랑 살고 싶니?

었다. 엄마는 말한다. 그때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노라고, 그래서 아빠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노라고, 하지만 이제는 직장도 구했고 자녀와 살 집도 구했으니 재발 자신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빠는 말한다. 애들을 아빠에게 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 다시 데려가겠다고 하느냐. 애들은 현재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애들 엄마는 경제적 능력이 없고, 애들 뜻을 너무 많이 받아주어서 애들이 버릇없이 자랄 것이므로 엄마에게 보낼 수 없다고.

그심 끝에 법원 조사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였으나 부모들에 대해 비슷한 정도의 애착과 적응을 보여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인 누나와 초등학교 2학년인 남동생을 직접 만났다. 우리 애들보다 서너 살씩 많은 아이들이다.

엄마와 아빠의 사정에 의해서 둘 중 한 사람과는 떨어져 살아야만 하고, 부모 중 누가 자신들을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원까지 오게 된 것이다. 마음이 아

필수적이다. 나는 협의이혼사의 확인을 하면서도 간혹 이런 말을 한다. “엄마·아빠는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에 관한 약속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들이 겪을 고통과 혼란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두 분의 자녀들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아울러 이혼 결정을 내린 부모에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조언한다. ▲아이들에게 언제·무엇을 말할 것인지 미리 계획할 것 ▲이혼에 관해 간단한 이유를 말해주되, 정직하고 정확하게 말해 줄 것 ▲아이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줄 것 ▲이혼 후에도 여전히 가족이며, 앞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볼 것임을 알려 줄 것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 ▲아이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말 것 ▲아이들을 심부름꾼이나 고자질쟁이로 이용하지 말 것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해 줄 것 등이다.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판사)

기 고

유태명



지난 3일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은 2011년 개최 예정인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옛 광주읍성터 내 10곳, 푸른길공원 3곳 등 13개소에 세계적인 건축가 작품을 설치하는 ‘어번 폴리 프로젝트(Urban Folly Project)’를 추진기로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동구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웅비의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도심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활성화는 물론,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을 문화로 디자인한다는 측면에서 훌륭한 창조적 발상이며,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동구청의 참여는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관할 자치구와 주민참여가 배제된 일방통행식 사업추진으로 인해 사업추체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책사업에서 배제된 동구청 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상호 소통 없는 추진으로 국책사업과 관할 자치구의 중장기계획이 상충될 소지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 추진 시 사업이 표류될 수 있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방의회까지 가세해서 왜 동구가 배제되고 있

‘어번 폴리 프로젝트’ 소통 아쉽다

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함과 함께 ‘소통’이란 단어가 뇌리를 강렬하게 스친다. 동구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곳이라는 중요성을 감안하면 동구 주민들도 사전에 알 권리가 있으며, 더군다나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관계기관의 충분한 설명과 관할 자치구와 주민의견이 일정 수준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동구는 또 옛 전남도청 부지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돼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그 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장기계획에 근거해 광주시가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는 올해 초부터 매월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관할 자치구인

는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문제의 본질을 ‘소통의 부재’라고 말하고 싶다. 지역발전과 상생을 위해 광주시에 대해서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과 주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체제로 지역여론수렴 협의체 구성을, 문화체육관광부소속 문화추진단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문화수도 정례 협의체에 동구청의 참여를 공식 제안하고자 한다.

그래서 지역주민, 중앙부처, 광주시, 관할 자치구 4자 모두가 민선 지방자치의 공간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뜻을 살리면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전 의견조율을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원대한 마스터플랜을 완성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 동구청장)

컴퓨터 세대들 난필 많아 연필로 쓰는 과제 내줬으면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에 다니는 두 아이의 글씨체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서 걱정이 많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만 보더라도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난필이 많다. 이는 PC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직접 글씨를 쓰는 대신 컴퓨터 자판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가정 세대들은 글씨를 바르고 정확하게 배우고 익혀온 터라 달필은 아니더라도 누구나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는 된다. 그때는 아예 붓글씨 형태의 펜글씨까지 쓸 정도로 글씨체에 신경을 썼고 그것이 수양의 기본이었다.

하지만 컴퓨터에 익숙한 세대들은 정자(正字)의 필요성을 못 느낄 뿐더러 약필이 많다.

학생들이 필기도구로 직접 글을 써보는 것은 여러모로 학습에 도움이 된다. 또박또박 쓰는 글씨는 글자마다 정성이 들어가면서 인내심도 길러지고 올바른 심성형성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각 학교에서는 국어나 사회, 도덕과 같은 과목들의 과제를 일부만이라도 학생들이 직접 연필로 써서 낼 수 있도록 하면 어떻까 한다.

▲남준희·광주시 남구 진월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